

권두언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레 25:23)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한 아담 스미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경제는 성경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이러한 성경적인 경제관은 서서히 인본주의적인 경제관으로 대체되어 갔다. 즉, 영원히 사고 팔아서는 안될 토지가 몇몇 소수 지주들의 탐욕하에서 독점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변해 갔고, 속여서는 안될 저울눈금 역시 탐욕스런 상인들의 손에 의하여 공공연히 속이는 대상이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 역시 천박한 경제주의의 논리 속에서 침상에 누워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날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비단 이러한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자본주의 경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불가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반대논리는 곧 공산주의라는 인식하에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따라서,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경제논리로 간주되어 이를 대신하는 그 어떠한 경제논리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하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경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계신양 착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온 땅에 편만하여지듯이,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한 이름없는 경제학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경제논리가 주창되었다. 그는 모든 토지의 궁극적인 사유화를 막고 오로지 사용권만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세금을 단일화하면 소위 ‘빈익빈 부익부’라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설파하였던 것이다. 그의 경제논리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

이었으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경제를 생각하고 운영해 오던 그 당시의 많은 학자나 정치인들에게 그의 이론은 너무도 파격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조차 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이미 경제학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생각을 너무도 오래간 까닭에 그의 이론을 감히 수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통권 제29호 「통합연구」지에 실린 3편의 논문들은, 마치 세속적 경제학이라는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한편 한편이 청량한 느낌을 주는 옥고이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독교 경제학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김홍섭 님의 논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독점금지 사상을 현대의 독점금지 사상과 비교하여 성경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의를 부각시킨 이의영 님의 논문, 헨리 조지의 경제관에 의하여 한국의 농지개혁의 효과를 조감한 전강수 님의 논문. 많은 고민과 산고 끝에 이같이 좋은 논문을 투고하신 이들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경제학이라는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통합연구지는 활짝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 제2, 제3의 한국의 헨리 조지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이분들 외에도 「새로운 해방의 경제학」이라는 좋은 책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서평을 써주신 이재울 님, 그리고 일반논문을 투고하여 주신 양승훈 님과 신기영 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여호와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시 111:2)

하나님이 주신 시원한 장마비를 보면서
명륜동 연구실에서 이견창